

동방신기, 中 11월 공연 전원 출연?.."협의 중"

이수현 · 입력 2009. 10. 31. 15:29 · 수정 2009. 10. 31. 15:29

[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수현 기자]



동방신기의 시아준수, 믹키유천, 영웅재중, 최강창민, 유노윤호(왼쪽부터) ©사진=홍봉진 기자 honggga@

동방신기의 영웅재중, 믹키유천, 시아준수 세 멤버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출연하는 것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세 멤버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의 한 관계자는 31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"세 멤버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 전 잡힌 스케줄은 팬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출연하겠다는 입장"이라며 "하지만 그 이후 잡힌 스케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조율 중이다"고 밝혔다.

이 관계자는 "오는 11월 21일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공연은 세 멤버가 소송을 제기한 후 잡힌 공연인 것으로 알고 있다"며 "이 공연 출연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"고 말했다.

세 멤버는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, 지난 27일 재판부로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. 이에 세 멤버 측은 다음 주께 전속계약 무효 및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[관련기사] 동방신

기 분쟁으로 본 가요계 개선과 변화의 해법 동방신기, 日 활동은 계속..NHK드라마 주제가 불리 동방신기 3인 측 "계속 동방신기로 활동하고 싶다" 동방3인 "유리" vs SM "이의제기", 본격 법정분쟁 선언

모바일로 보는 스타뉴스 "372 누르고 NATE/magic@ez-i"

torie21@mtstarnews.com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제보 및 보도자료 star@mtstarnews.com < 저작권자 © '리얼타임 연예속보,스타의 모든 것' 스타뉴스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

이수현

스타뉴스 & starnewskorea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